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유린¹ · 장경애^{2*}

¹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²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Academic Situation on Evaluation Concerns Perfectionism and Self-Handicapping: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Yu-Rin Kim¹, Kyeong-Ae Jang^{2*}

¹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on perfectionism and self-handicapping an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135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s in relation to perfectionism and self-handicapping.

Results: The study showed that perfectionism was a factor affecting self-handicapping, and that fears of a positive evaluation had a greater mediating effect than fears of a negative evaluation.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your own values and to cultivate positive thinking. An atmosphere of counseling and of learning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riteria for success can be objective rather than arrived at by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Keywords Dental hygiene students,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elf-handicapping

Received on May 26, 2022. Revised on Jun 14, 2022. Accepted on Jun 20, 2022.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ka@silla.ac.kr)

I. 서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발적 자가 격리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변화되었다[1]. 대학 또한 2020년 초의 폭발적인 감염상태로 인해 개강이 미루어지고, 전 학기동안 국 내외 대부분의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심리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대학생 생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발생시켰고, 학교라는 중요한 공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2].

학교는 수업을 통한 지적 향상 외에도 친구와 선후배 및 교수들과 교류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들이

박탈되어 혼란과 우울 및 무력, 회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와 정서가 유발되고 있다[2]. 대학의 다양한 학과 중에서도 치위생(학)과는 특성상 수업의 대부분이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된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룹 활동과 현장실습, 대면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회피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회피의 원인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회피 행동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기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에 주목하였다[3].

자기구실 만들이란 성공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이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행의 실패를 조성하는 심리적 기제이다[4].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수행 실패를 외부에서 찾는 것으로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만들어 변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구실 만들기는 언어적 자기

구실 만들기(claimed self-handicapping)와 행동적 자기구실 만들기(behavioral self-handicapping)로 나뉜다[5]. 전자는 ‘시험 전날 영화를 보느라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혹은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아서 시험에 망했다’와 같이 실패할 때를 대비하여 언어적으로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반면, 후자는 약물이나 음주, 노력하지 않기, 미루기와 같이 성공할 확률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행동을 말한다[6]. 그 중에서 행동적 자기구실 만들기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실제로 만들기 때문에 학업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선행연구에서 자기구실 만들기과 학업성취 간에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지속될 경우 성취 수준과 자존감이 하락하는데, 이는 또 자기구실 만들기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8]. 따라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하는 학생은 대학의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이나 이탈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9,10].

완벽주의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높은 수준의 수행을 요구하는 행동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구실 만들기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1]. 현대의 대학생들은 혹독한 취업 경쟁에 노출되어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이미 청소년기부터 평가에 대한 부담감과 염려,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가 나타나게 된다[12]. 이는 자기의 행동을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는 타인의 비판과 기대에 대해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을 나타낸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평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행동적인 측면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우려하는 인지적인 측면을 포함하는데 이는 자기구실 만들기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3]. 이와 반대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평가 시 발생하는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시선, 타인과의 경쟁에서 생기는 불편감,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긍정적인 사건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14].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평가의 내용과 관계없이 타인의 피드백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며, 타인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 자신의 실수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15].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구실 만들기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3-15]. 따라서 대면수업이 많은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 요소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포괄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반적인 대학생을 포괄한 연구[2,8,12]가 대부분으로 대면수업이 많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화 이후의 대면수업이 많은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구실 만들기를 낮추고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일부지역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추출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가 확인 후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었고,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며, 유의수준 5%(양측)을 이용하여 검정력 80%, 효과 크기 0.5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31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총 142부가 배부되었다. 최종 분석은 설문의 답변이 누락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3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성적으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측정도구는 윤[16]의 연구에서 수

정 보완하여 27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자기구실 만들기의 측정도구는 윤[16]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12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도구는 강과 김[17]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도구 12문항,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도구 1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0.956, 자기구실 만들기가 0.84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0.923,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0.740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27.0(IBM Crop, Armonk,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에서 검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Baron & Kenny [18]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매개 분석방법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Model 1은 독립변수(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매개변

수(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Model 2는 독립변수(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종속변수(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 Model 3은 독립변수(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매개변수(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가 종속변수(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Figure 1). 분산팽창요인계수는 다중공선성 결과 10 미만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3학년' 59.3%, '4학년' 22.2%, '2학년' 18.5% 순으로 나타났고 성적은 '3.5 이상~4.0 미만' 41.5%, '3.0 이상~3.5 미만' 31.9%, '2.5 이상~3.0 미만' 7.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124	91.9
	Male	11	8.1
Grade	2	25	18.5
	3	80	59.3
	4	30	22.2
Result	2.5 or more and less than 3.0	10	7.4
	3.0 or more and less than 3.5	43	31.9
	3.5 or more and less than 4.0	56	41.5
	4.0 or higher	26	19.3
Total		135	100.0



<Figure 1> Research model

2.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학업상황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3.29점, 자기구실 만들기 2.94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78점, 평가염려 완벽주의 2.73점으로 나타났다.

3.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자기구실 만들기($r=0.694, p<0.01$)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99,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47, p<0.01$)에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구실 만들기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653, p<0.01$)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70, p<0.01$)에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57, p<0.01$)에 정(+)적 상관관

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4.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매개효과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은 살펴보면, 1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매개변수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0.799, p<0.001$), 2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하게 나타나($\beta=0.694, p<0.001$).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0.475, p<0.001$), 매개변수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0.274, p<0.01$). 2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계수 값이 0.694로 나타난 데 반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투입된 3단계에서의 β 계수 값이 0.475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고,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 결과는 Sobel $Z=2.720, p<0.05$ 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평가에

<Table 2> Degree of fear of evaluation, concerns perfectionism, self-handicapping, and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s in academic situations N=135

Categories	M ± SD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73±0.73
Self-handicapping	2.94±0.64
Fear of negative evaluation	3.29±0.79
Fear of positive evaluation	2.78±0.57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concerns perfectionism, self-handicapping,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fear of positive evaluation in academic situations

Variables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Self-handicapping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1.000			
Self-handicapping	0.694**	1.000		
Fear of negative evaluation	0.799**	0.653**	1.000	
Fear of positive evaluation	0.747**	0.770**	0.757**	1.000

** $p<0.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매개효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매개변수인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0.747$ $p<0.001$), 2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하게 나타나($\beta=0.694$, $p<0.001$)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0.267$ $p<0.001$), 매개변수인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구실 만들기에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0.570$, $p<0.01$). 2단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계수 값이 0.694로 나타난 데 반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투입된 3단계에서의 β 계수 값이 0.267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Sobel $Z=6.090$, $p<0.05$ 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고찰

코로나 상황의 대변환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대면의 편리성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다시 대면으로의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대면수업을 한번도 접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시간표에 맞추어진 학과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문의 질적 연구[19]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이후 비대면 수업에 대하여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경험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있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추론하자면 대면 전환을 반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단지 자신의 나태에서 오는 실패를 코로나 상황만을 탓하는 자기구실 만들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이후 시험 평가 방법에 대하여 ‘비대면 온라인 시험은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시험을 본 저 같은

<Table 4> The effect of perfectionism in dental hygiene students' academic situation on self-handicapping focusing 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tep	Model	B	SE	β	t(p)	F(p)	R ²	Adj R ²
1	Constant	0.926	0.160		5.801			
	1→2	0.864	0.056	0.799	15.344***	235.423***	0.639	0.636
2	Constant	1.280	0.155		8.273***			
	1→3	0.607	0.055	0.694	11.104***	123.301***	0.481	0.477
3	Constant	1.075	0.169		6.352***			
	1→3	0.416	0.089	0.475	4.674***	7.249***	0.508	0.501
	2→3	0.221	0.082	0.274	2.692**			

*** $p<0.001$, Sobel $Z=2.720$

Model 1: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 Fear of negative evaluation, 3: Self-handicapping

<Table 5> The effect of perfectionism in dental hygiene students' academic situation on self-handicapping focusing o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tep	Model	B	SE	β	t(p)	F(p)	R ²	Adj R ²
1	Constant	1.176	0.128		9.183***			
	1→2	0.586	0.045	0.747	12.969***	168.207***	0.747	0.555
2	Constant	1.280	0.155		8.273***			
	1→3	0.607	0.055	0.694	11.104***	123.301***	0.481	0.477
3	Constant	0.533	0.169		3.154**			
	1→3	0.234	0.070	0.267	3.332**	50.514***	0.625	0.619
	2→3	0.636	0.089	0.570	7.107***			

*** $p<0.001$, ** $p<0.01$, Sobel $Z=6.090$

Model 1: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 Fear of positive evaluation, 3: Self-handicapping

사람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까 봐 엄청 불안하죠.’라고 하여 평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받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벽주의 성향 그 자체에 접근하기 보다는 관련된 부정적인 신념의 수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면수업이 많은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증가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자기구실 만들기 문제 해결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자기구실 만들기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653, p<0.01$)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70, p<0.01$)이 모두 관련성 있었다. 그 중에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더 큰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상황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것이라 생각된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 만족스러운 수행을 했음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불편한 심리로 자신의 능력이 노출되거나 타인의 주목을 끌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코로나 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비해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강과 김[21]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전환된 온라인 시험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긍정적이더라도 이를 부정하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관련성이 더 높은 것이라 생각된다. Wallace와 Alden의 연구[22]에서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의 성공적인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결국 타인의 기대에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한다고 하였다. 이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지연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일 뿐,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성이 높은 것과 일치한다.

한편,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모두 관련성이 높았다. 그 중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김과 이의 연구[23]와 일치한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차이는 0.219였고,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차이는 0.427로 후자가 더 큰 매개효과가 있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우습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수를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높아진 평가 기준이 사회적인 경쟁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조사된 성과 김의 연구[24]에 따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면 회피가 감소하는 반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효능감과 상관없이 회피를 가중시키고, 사회적인 불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더 큰 매개효과를 가지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코로나 대변환 이후 높아진 사회불안 속에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감은 자기구실 만들기를 더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치위생(학)과는 다양한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고시와 관련된 과중한 학습량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에 학생들은 평가에 매우 민감하며 이러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상황을 회피하는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미친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분야의 전문 지식인으로서 응급상황의 대처는 물론이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학생 때부터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그 매개변수로 위험성이 높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에서 조사되어 여성편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일반화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 시 보다 다양한 광역시의 대상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는 복잡한 개인의 환경이 반영되므로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위생(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고,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효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 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1.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99,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47, p<0.01$), 자기구실 만들기($r=0.694, p<0.01$) 순으로 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구실 만들기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770, p<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0.653, p<0.01$) 순으로 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에서 대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결과, 부분 매개하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에서 대학생들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결과, 부분 매개하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에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하게 형성하고, 긍정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생과의 상담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을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객관적 및 대안적 사고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Protect your mental health from the stress of COVID-19.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384: 66-67, 2020.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063758833639.pdf>
2. Kang JH, Pak AR, Han ST: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festyle Chang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5):289-297, 2020. DOI: 10.21184/jkeia.2020.7.14.5.289
3. Yavuzer 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handicapping tendencies, self-esteem and cognitive distortion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5(4):879-890, 2015.
4. Jones EE, Berglas S: Control of attributions about the self through self-handicapping strategies: the appeal of alcohol and the role of underachiev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200-206, 1978. DOI: 10.1177/014616727800400205
5. Berglas S, Jones EE: Drug choice as a self-handicapping strategy in response to noncontingent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4):405-417, 1978. DOI: 10.1037//0022-3514.36.4.405
6. Lee EJ: The Relationship of Claimed and Behavioral Self-handicapping to Flow experience: Moderation effect of Self-doub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 10(1):139-157, 2013. DOI: 10.16983/kjsp.2013.10.1.139
7. Ntoumanis N, Taylor LM, Standage M: Testing a model of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defensive pessimism and self-handicapping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Sports Sciences 28(14):1515-1525, 2010. DOI: 10.1080/02640414.2010.511650
8. Schwinger M, Wirthwein L, Lemmer G, Steinmayr R: Academic self-handicapping and achieve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6(3):744-761, 2014. DOI: 10.1037/a0035832
9. Stewart MA, De George-Walker L: Self-handicapping, perfectionism, locus of control and self-efficacy: a path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6:160-164, 2014. DOI: 10.1016/j.paid.2014.03.038
10. Yavuzer, 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handicapping tendencies, self-esteem and cognitive distortion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5(4):879-890, 2015. DOI: 10.12738/estp.2015.4.2434
11. Kearns H, Forbes A, Gardiner M, Marshall K: When a high distinction isn't good enough: A review of perfectionism and self-handicapping. Australian Educational Researcher 35(3): 21-36, 2008.
12. Jhi MW, Lee JY: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on Depression: the mediation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7(4):127-140, 2020.
13. Jeong MK, Lee JY, Jang JY: The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on the Procrastina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Fear of Negative

- Evaluation and Self-handicapping.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1(1):259-280, 2014.
14. Taylor CT, Bomyea J, Amir N: Attentional bias away from positive social information mediates the link between social anxiety and anxiety vulnerability to a social stresso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4):403-408, 2010.
DOI: 10.1016/j.janxdis.2010.02.004
 15. Yap K, Gibbs AL, Francis AJ, Schuster SE: (2016). Testing the bivalent fear of evaluation model of social anx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ocial anxiety, and perfectionism.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5(2):136-149, 2016.
DOI: 10.1080/16506073.2015.1125941
 16. Youn MH: The Effects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college students self-handicapp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3):545-553, 2021.
DOI: 10.22251/jlcci.2021.21.13.545
 17. Kang HU, Kim J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on self-handicapping: the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35(3):247-266, 2019.
DOI : 10.33770/JEBD.35.3.12
 18.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1173-1182, 1986.
DOI: 10.1037/0022-3514.51.6.1173
 19. Moon HJ: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tress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displayed in non-face-to-face college life by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1):233-247, 2021.
DOI: 10.22251/jlcci.2021.21.11.233
 20. Dunkley DM, Blankstein KR: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s,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6): 713-730, 2000.
 21. Kang HU, Kim J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on self-handicapping: The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5(3):247-266, 2019.
DOI: 10.33770/JEBD.35.3.12
 22. Wallace ST, Alden LE: Social phobia and positive social events: The price of suc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416-424, 1997.
DOI: 10.1037//0021-843x.106.3.416
 23. Kim SJ, Lee YS: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and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3):1919-1938, 2013.
DOI: 10.15703/kjc.14.3.201306.1919
 24. Seong CE, Kim HK: The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positive evalua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on social anxiety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8):201-221, 2021.
DOI: 10.21509/KJYS.2021.08.28.8.201